

보수층 표심 종착역은? ... ‘비문후보’ 단일화는?

대선 D-29 ... 변수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5·9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 달 사이에도 몇 번은 판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예상이다. 장미 대선의 변수로는 보수표심의 향배와 후보 단일화 여부, 네거티브 공방 등이 꼽히고 있다.

◇보수 표심의 종착역은=그동안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거친 보수층 표심은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로 향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다. 안 후보가 자금채널 문 후보의 유

네거티브 공방 상처 누가 더 치명적 일까

급변 국제정세... 안보이슈 쟁점화 가능성도

일한 대항마로 실질적인 양강 구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면 보수 표심의 ‘사표 방지’ 심리와 문 후보 집권 저지라는 명분에 따라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문 후보가 ‘대세론’을 회복하거나 안 후보의 추격세가 격일 경우 일종의 ‘대안’으로 안 후보를 지지해온 보수층이 실망해 떠나갈 여지도 충분하다. 범보수 진영에서 안보와 이념, 지역감정을 고리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처럼 안 후보에게 흘러온 보수층 지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문 단일화 구도=대선에서는 원내 5당이 모두 후보를 낸 만큼 단일화는 고차 방정식이 됐다. 가장 파괴력이 큰 시나리오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제3지대’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비문(비문재인) 후보’ 단일화다.

하지만, 각 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이 저마다 ‘자강

론’을 내세운 데다 열쇠를 쥐고 있는 안 후보가 “정치공학적 연대론을 불살랐다”고 선을 그어 성사 가능성이 낮다. 안 후보는 인위적 연대 없이 양강 구도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수와 손을 잡으면 ‘적폐 연대’라는 공격의 발미를 줄 수 있고 호남 민심이 보수 세력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후보와 유 후보 간의 보수 후보 단일화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안 후보에게 몰렸던 보수 표심의 이동 가능성도 있다.

◇네거티브 공방=네거티브 검증 공방이 어느 후보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해야 한다. 문 후보에게 제기된 아들 ‘재용 특혜’ 의혹은 가장 큰 이슈다. 이는 문 후보 지지층으로 평가 받는 20·30대 유권자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은폐 의혹도 아픈 부분이다.

안 후보에게는 ‘차떼기’ 경선 동원 의혹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행적 등이 대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 의혹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경우에는 ‘막말 논란’과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여부도 선거 변수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아낀 후보들에게 ‘불안한 안보관’이라는 프레임의 씨앗을 심어 보수층 결집에 성공할 경우 대선이 다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폭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이슈의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군소·무소속 20명 “나도 있소”

이재오·남재준·김선동·노남수 등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5개 정당의 대선후보 외에 원외 정당과 무소속 출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명단에는 주요 정당 소속 외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 무소속 남재준 전 국회의원 등 이른바 군소후보들까지 총 20명이나 된다.

김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비문’(비문재인) 단일화 추진의 중심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예비후보 중에는 임기를 1년만 하고 사임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한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 이재오 공동대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하겠다며 개헌을 약속했다.

남재준 전 국회의원장 역시 눈에 띄는 이력을 지닌 무소속 대선 후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은 “중복좌파를 척결하고 갈등과 분단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예비후보에는 전 통일집보당 원내부대표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인 한반도미래연합 김경선 후보도 있다.

또 종교인 김마리아 후보, 예술인 권정수 후보, 전남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 노남수 후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예비후보가 등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권교체를 위하여 건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 세번째)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총남지사(오른쪽)·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최성 고양시장(왼쪽)과 함께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국민의당 경선 130명 동원 당 관계자 2명 조사

국민의당 “당원권 정치·출당 등 조치”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자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경선에서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는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동원해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뒤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선거인 13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수당 136만 원과 차량 임차

료 85만 원 등 총 221만 원을 제공했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경선 선거인단 불법동원에 시당 비상근직 관계자가 관련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직 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치 또는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무급직인 비상근 직능국장에 위촉됐다”며 “자체조사 결과 A씨가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목포시의원 등 일부 당 관계자들의 세월호 배경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 “이유야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라며 당 원내대표로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檢 ‘최순실 비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12일 새벽 결판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 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신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북핵 해법없이 경고만 나온 미중 정상회담

중·북 대응 따라 한반도 정세 요동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 ‘의기투합’은 없는 대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최후통첩성 경고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핵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뜻을 같이했지만 시 주석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회담 결과를 설명한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7일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것(미중 협력)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북핵)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6일 시 주석과의 만찬이 끝난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크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일은 대북 군사행동도 배제된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알린 일로 해석됐다. 결국 경고장을 받아든 중국과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국의 현직 정상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회담직후 결과를 통보한 상황은 우려를 갖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 · 휴양 · 온천 · 체임 · 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 · 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 · 유후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 · 하기 · 시모노세키 · 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 · 가라츠 · 후쿠오카 · 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는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 · 화 · 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울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울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 · 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 · 호이안 · 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 · 후에 · 밧마 · 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 · 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울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공동조전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음식(단,기차/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